



여의도는 뜨거웠다

인쇄인 중에는 다혈질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도 전반적인 행동성향을 보면 신중하고 점잖은(?) 편이다. 인쇄인들은 어떤 주장이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로 몰려가서 시위를 하거나 이마에 띠를 두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해방이후 60년 인쇄 역사를 살펴보다도 권익보호를 요구하거나 지원, 육성을 요청하는 전국 단위의 모임이 두어차례 있었을 뿐이다. 대표적인 모임중의 하나가 1988년 11월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앞에서 개최되었던 「전국인쇄인 생존권수호 쟁취대회」를 꼽을 수 있다. 전국에서 운집한 1만여명의 성년 인쇄가족들이 신문사를 비롯한 대기업, 비파세단체 등의 인쇄영역 침식을 규탄하고 전국의 인쇄인이 한데 뭉쳐 생존권을 지켜 나가기로 결의 했는데 우리나라 인쇄업계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회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인쇄인들의 외침에 놀란 여러명의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들이 현장에 찾아와서 인쇄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지난 5월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시도에서 대회의실 좌석의 세배에 가까운 1천3백여명의 인쇄관련인들이 참석해서 3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를 지켜봤는데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관심과 열기가 장내에 넘쳐 흘렀다.

직지의 법률명문화와 직지의 세계화를 염원하는 청주시민과 관계자들, 불편한 몸으로 공청회장에 나온 20명의 인쇄를 배우는 사람들, 멀리 제주도에서 한달음에 달려 온 30여명의 인쇄인들, 김원기국회회장의 축사와 국회의원 여섯명의 축사, 박희태국회부회장과 이재오한나라당원내대표의 참석도 인쇄업계에 큰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인쇄업계 사상 단독법률 공청회 역시 첫 기록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4

어느 일간지 기자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유망산업인 인쇄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출판산업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인쇄문화산업의 단독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개 정당에서 4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은 의안 제174317호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 정식, 회부됨으로써 법률제정을 위한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청회가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크게 만족만 할 일은 아니다.

공청회는 어디까지나 법률제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뜨거운 열정과 함께 현실을 냉정하게 읽을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무조건적인 주장이나 외침은 이제 통하지도 않고 호응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논리의 정립과 합리적인 자료의 뒷받침, 범업계적인 단결이 이루어 질 때 법률제정이라는 어려운 문턱을 넘어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의 호의적인 시각을 더욱 넓히고 인쇄업계의 실정을 알리고 법률통과에 협조를 구하는 일도 전국의 인쇄인들이 내일처럼 앞장서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공청회 전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한 국회방송을 보신 여러분이 연락을 주셨다. “인쇄업계 생각했던 것 보다 대단하네요” 이런 반응이 바로 일반국민에 대한 인쇄업계의 위상강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일간지 기자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유망산업인 인쇄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출판산업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인쇄문화산업의 단독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쇄인이나 출판인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리는 아닌 듯 싶다. (오세익 · 편집주간)